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	• 혁신금융 • 포용금융 • 신뢰금융
	보도	2019.12.17.(화) 14:30	배포	2019.12.17.(화)	

책 임 자	금융위 서민금융과장 변 제 호(02-2100-2610)	담 당 자	박 보 라 사무관 (02-2100-2614)
	국민행복기금 운영사무국장 심 재 철(02-2128-8170)		나 선 희 차장 (02-2128-8171)
	서민금융진흥원 금융기획부장 박 장 구(02-2128-8085)		박 지 훈 차장 (02-2128-8086)

제 목 : 「서민금융협의회」 개최 결과

■ '20년도 정책서민금융상품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「서민금융협의회」를 개최

- ❶ 햇살론17 성과 점검 및 '20년 운영방안 논의 (※별첨1)
- ❷ 햇살론youth 출시방안 논의 (※별첨2)

□ 2019년 12월 17일(화),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「서민금융협의회」를 개최하였습니다.

□ 금일 협의회에서는 ① 햇살론17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 여건을 점검하고, '20년도 운영방향을 논의하였으며,

② 청년·대학생 금융지원을 위한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「햇살론 youth 출시방안」을 논의·확정하였습니다.

< 「서민금융협의회」 개요 >

- ◇ 일시·장소 : '19.12.17(화), 14:30~15:30 / 프레스센터 5층
- ◇ 참석자 : 금융위 부위원장(주재), 서민금융진흥원, 한국자산관리공사, 금융감독원, 지신보증양회, 은행연합회, 저축은행중앙회, 여신금융협회, 농협중앙회, 생명보험협회(참관), 손해보험협회(참관)
- ◇ 근거 :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(서민금융 관련 정책의 종합적 수립 및 유관기관간 원활한 협의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설치)

□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,

- 그간 정책서민자금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왔으나 재원 한계 등으로 추가 확대 공급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,
- 그럼에도 불구하고, 내년에도 서민의 금융애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서민을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
□ 나아가, 부위원장은 햇살론17, 햇살론^{youth} 등 신규 상품과 관련하여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.

- ‘햇살론17’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어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적시에 지원하는 등 당초 정책 의도대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
 - 내년에는 올해보다 확대된 5천억원 수준을 공급하되 시장 여건에 따라 공급목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.
- ‘20년 1월에는 정부재정으로 100% 보증하는 ‘햇살론^{youth}’가 출시될 예정이며,
 - 저금리(3.6%~4.5%) 자금지원으로 취업 준비 중인 청년·대학생의 자금애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.

□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햇살론, 새희망홀씨, 미소금융 등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내년도 공급계획과 서민금융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,

- 이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·협의 등을 거쳐 방안을 확정된 후 별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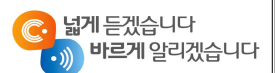
※ [별첨] 주요 논의 안건

- ① 햇살론17 성과 점검 및 ‘20년 운영계획
- ② 햇살론^{youth} 출시 방안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